■ 2026년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심사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ㅇ 회의일시 : 2026년 10월 14(수) 10:30~12:30 ㅇ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고준환, 김성규, 김현환, 송광호, 이의신
먼저 녹록지 않은 지역의 후원 환경 속에서도 기업과 예술가를 찾아 잇고 결연을 일구어 주신 각 지역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본 사업은 지역의 예술가(단체)와 기업이 맺은 후원 결연에 공공이 시상으로 응답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자발적 후원금에 지역문화재단의 지역의무지원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시상금이 더해지는 구조는, 민간의 후원 의지를 공공이 인정하고 북돋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업 후원이 수도권과 대규모 단체에 집중되어 온 현실에서, 지역 단위의 후원 결연을 발굴하고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 자체가 귀한 출발이라고 심사위원들은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총 16개 재단이 신청한 가운데 지원대상 외 단체의 신청 1건을 행정적 결격으로 제외하고, 15개 재단의 후원결연 105건을 심사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제척·회피 기준을 준수하고 공정심사 서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여건을 확보하였으며, 위원별 사전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회의에서 종합 토론과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심사는 예술적 성취를 견주는 자리가 아니라 결연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자리였기에, 위원들은 무엇보다 두 가지를 놓고 오래 논의하였습니다. 하나는 지역의무지원금이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가, 다른 하나는 기업의 후원이 거래나 계약과 구분되는 자발적 후원으로서 진정성을 갖추었는가입니다. 공공재원이 매칭되는 사업인 만큼 후원의 독립성은 곧 사업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데 위원 모두의 뜻이 모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마다 후원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되, 공고에 명시된 요건만큼은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후원결연 101건에 대해 1,437.9백만 원(시상금 1,428.2백만 원, 운영비 9.7백만 원)의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배정예산의 잔액은 전년과 같이 사업 확산을 위한 후속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가장 반갑게 확인한 것은 후원의 모습이 한층 다양해졌다는 점입니다. 공익법인의 장기 후원, 기업이 보유한 공간을 내어 준 전시와 공연 등, 지역 기업의 후원이 예술가의 실제 창작으로 이어지고 지역문화재단이 그 사이를 든든히 잇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후원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관계로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한편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설립 연한, 지역의무지원금의 인정 범위와 산정 방식, 운영비 상한 등 공고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어 제외하거나 감액할 수밖에 없었고, 후원기업과 예술가 간 관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결연은 교부 단계에서 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몇 가지 당부드립니다. 각 지역문화재단에는 교부 단계에서 후원기업과 예술가(단체) 간 특수관계 및 계약관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는 지역의무지원금의 인정 범위와 계약관계가 있는 후원의 처리 기준을 공고에 보다 분명히 담아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유사 사업 간 역할을 정리하는 한편 재단의 자율성을 높이되 평가에 기반해 우수한 모델을 규모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꾸준히 예술을 후원하는 기업에 대한 명예 보상 등, 기업이 자부심을 갖고 후원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본 사업이 단순히 후원금이나 결연 건수를 확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업과 예술이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맺어진 소중한 결연들이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해를 거듭하며 이어져, 지역 곳곳에서 기업과 예술이 서로의 성장을 돕는 건강한 파트너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위원 일동